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장래 및 유학 등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외국에 대한 관심, 유학의향, 유학희망국가 등을 조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글로벌 의식 및 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인터넷을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의 확산과 교통,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로 국가간의 왕래와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소년 또한 유학에 대한 관심과 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학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임.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조기유학과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순형, 권미경, 2009; 정용교, 2013; 조혜영 외, 2007)
- ▶ 국외 한국인유학생수(학위과정과 연수과정 포함)는 2011년 262,46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214,696명으로 5만명 가량 감소했다가 2017년 239,824명으로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임 (e-나라지표, 2018).
- ▶ 본원이 2011년도에 수행한 한, 중, 일, 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81.8%가 외국문화나 생활에 대한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외국에 가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음(이경상 외, 2011). 또한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청소년 17.7%, 중국 39.2%, 일본 48.8%, 미국 44.1%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네 국가 가운데 가장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한편, 한국청소년들이 1순위로 유학가고 싶다는 응답비율은 미국이 36.7%로 가장 많았고 영국 12.7%, 호주 10.4%, 캐나다 7.5% 순이었음. 즉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미국과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유학을 가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유학의식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큼. 실제로 김진숙과 이경상(2012)의 연구결과 아버지의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유학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음.

- ▶ 청소년들이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된 원인은 한국학교에 대한 불만, 조기유학 후 얻을 수 있는 직업선택가능성, 해외체류나 연수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조혜영 외, 2007). 정용교(201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탈피하기 위해 필리핀 조기유학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특히 학생들은 필리핀문화를 새롭게 배움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음.
-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해외유학이라는 글로벌 체험을 통해 건문을 넓히고 영어를 배워 국내에 있는 학생보다 높은 경쟁력을 얻기 위해 유학을 결심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세계시민의식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배울 수 있음. 특히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진학을 중요시하는 한국교육의 환경에서 탈피하여 보다 자유로운 수업환경에서 배우기 위해 유학을 택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유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부유한 가정에 속한 경우가 많아 사회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사회계층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외화낭비 등의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임(이순형, 권미경, 2009).
- ▶ 이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청소년들의 장래 및 유학의식 비교를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결과만 분석할 예정임¹⁾.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보고자 함.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 4개국 비교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크게 25문항으로 구성돼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련된 문항들을 뽑아 분석을 하였음.
- ▶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장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외국에 대한 관심정도, 외국경험, 유학에 대한 의식 등으로 구성돼 있음.

1) 본 연구는 본원이 매년 수행해 오고 있는 한, 중, 일, 미 4개국 국제비교연구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한, 중, 일 3개국 담당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국청년정치학원 청소년연구소, 일본청소년교육진흥기구)가 2018년 3월 한국에서 열린 공동 심포지엄 자리에서 모여 2018년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한 바 있음. 설문지초안은 일본측에서 만들었음.

[표 1] 조사내용

조사영역	조사문항
장래의식 (3문항)	아래의 3가지 문항들에 대한 동의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 -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해 놓음 - 장래의 희망을 갖고 있음 - 장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의 프로가 되고 싶음
장래의 삶의 모습 (1문항)	아래의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함. ①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삶 ② 주위 사람들과 협조하여 사람들과의 화목을 중시하는 삶 ③ 자신의 취미와 개성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나가는 삶 ④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음
외국에 대한 관심 (7문항)	아래의 7가지 문항들에 대한 동의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 - 외국여행을 하고 싶음 - 외국의 문화와 생활에 흥미가 있음 - 외국어를 좋아함 - 외국인과 친구를 맺고 싶음 -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음 - 장래에 외국에서 일하고 싶음 - 외국생활을 동경하고 있음
외국에 가본 경험 (3문항)	- 외국에 가본 적이 있는지 질문 - 외국에 나간 목적 - 첫 외국 경험 시기
해외유학 (13문항)	- 해외유학흥미정도 - 해외유학관심계기 - 해외유학의향 - 해외유학을 가고 싶지 않은 이유 - 해외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 - 희망유학국가 - 희망국가로의 유학이유 - 유학지에서의 전공 - 유학목적 - 유학기간 - 유학준비정도 - 유학시 고민거리

본 조사의 연구방법은 아래 <표 2>와 같음. 표집은 층화집락표집의 방법을 통해 이뤄졌고 조사기간은 약 3주 소요되었음. 표집된 인원은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총 1,232명이었음.

[표 2] 연구방법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의 고등학교 1, 2학년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학교방문 조사
표집방법	층화집락표집 (전국을 크게 4개 권역별로 층화한 후 총 24개의 학교를 표집함. 한 학교당 각 학년에서 1개 학급 무작위 추출)
조사기간	2018년 9월 28일 - 10월 19일 (약 3주)
표집인원	총 1,232명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79\%p$

- ▶ 응답자의 44.1%가 남학생이었고 55.9%가 여학생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다소 많이 표집되었음. 학업성적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음.

[표 3] 응답자 구성²⁾

	사례수 (명)	계
▣ 전체 ▣	(1,232)	100.0
성별		
남학생	(543)	44.1
여학생	(689)	55.9
가정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23.7
보통	(836)	67.9
가난한 편	(104)	8.4
학업성적		
상위권	(377)	30.6
중위권	(467)	37.9
하위권	(388)	31.5

2) 가정경제수준은 매우 잘 사는 편임과 잘사는 편임은 잘사는 편으로, 가난한 편임과 매우 가난한 편임은 가난한 편으로 리코딩함.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권과 중상위권은 상위권으로, 중하위권과 하위권은 하위권으로 리코딩함.

III. 조사결과

1. 장래의식

- ▶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해놓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 가량(69.0%)이 그렇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장래목표를 설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이 장래목표를 정해놓은 경우가 많았음.

[표 4] 장래목표를 정한 경우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긍정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③+④)	계
▣ 전체 ▣	(1,232)	32.1	36.9	69.0	24.2	6.8	31.0	100.0
성별								
남학생	(543)	29.3	36.1	65.4	26.7	7.9	34.6	100.0
여학생	(689)	34.3	37.6	71.8	22.2	6.0	28.2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39.7	35.6	75.3	19.2	5.5	24.7	100.0
보통	(836)	30.4	37.6	67.9	25.7	6.3	32.1	100.0
가난한 편	(104)	24.0	35.6	59.6	26.0	14.4	40.4	100.0
학업성적								
상위권	(377)	39.3	37.1	76.4	18.6	5.0	23.6	100.0
중위권	(467)	29.8	37.5	67.2	27.2	5.6	32.8	100.0
하위권	(388)	27.8	36.1	63.9	26.0	10.1	36.1	100.0

- ▶ 응답자의 73.9%가 장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학업성적의 경우 상위권집단이 장래희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5] 장래희망을 갖는 경우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긍정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③+④)	계
▣ 전체 ▣	(1,232)	39.0	34.8	73.9	20.1	6.0	26.1	100.0
성별								
남학생	(543)	36.6	34.1	70.7	22.8	6.4	29.3	100.0
여학생	(689)	40.9	35.4	76.3	18.0	5.7	23.7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47.9	34.9	82.9	11.3	5.8	17.1	100.0
보통	(836)	36.5	35.5	72.0	23.1	4.9	28.0	100.0
가난한 편	(104)	34.6	28.8	63.5	21.2	15.4	36.5	100.0
학업성적								
상위권	(377)	45.1	37.1	82.2	13.3	4.5	17.8	100.0
중위권	(467)	37.5	35.5	73.0	22.1	4.9	27.0	100.0
하위권	(388)	35.1	31.7	66.8	24.5	8.8	33.2	100.0

➤ 거의 모든 청소년들(91.4%)이 장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의 프로가 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표 6] 장래 직업의 프로 의향

	사례수 (명)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긍정 (①+②)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③+④)	계
▣ 전체 ▣	(1,232)	60.1	31.3	91.4	7.5	1.1	8.6	100.0
성별								
남학생	(543)	57.3	33.5	90.8	7.7	1.5	9.2	100.0
여학생	(689)	62.4	29.5	91.9	7.4	0.7	8.1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67.1	26.7	93.8	5.1	1.0	6.2	100.0
보통	(836)	58.4	32.7	91.0	8.4	0.6	9.0	100.0
가난한 편	(104)	54.8	32.7	87.5	7.7	4.8	12.5	100.0
학업성적								
상위권	(377)	68.4	27.1	95.5	3.7	0.8	4.5	100.0
중위권	(467)	61.7	29.6	91.2	8.6	0.2	8.8	100.0
하위권	(388)	50.3	37.4	87.6	10.1	2.3	12.4	100.0

2. 장래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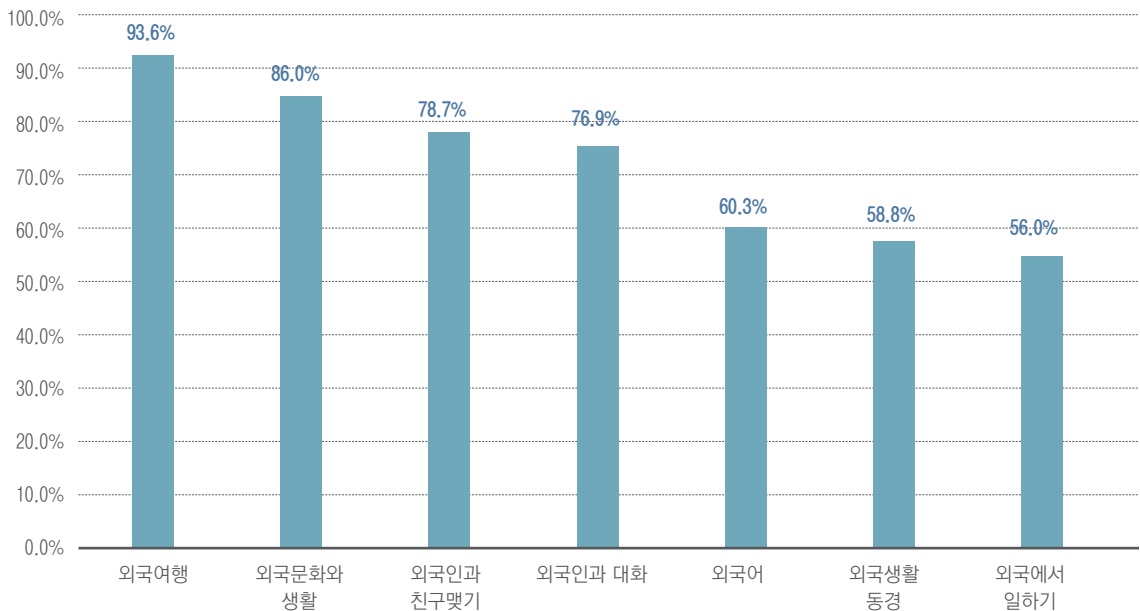
- ▶ 응답자들에게 장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고르도록 하였음. 그 결과 자신의 취미와 개성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나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음. 특히 이 비율은 가난하다고 응답한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경우와 잘사는 편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7] 장래에 희망하는 삶

	사례수 (명)	자신이 앞장서서 생각을 하여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삶을 갖고 싶다	주위의 사람들과 협조하여 사람들과의 화목을 중시하는 삶을 갖고 싶다	자신의 취미와 개성을 소중히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나가는 삶을 갖고 싶다	상기의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1,232)	10.9	32.7	52.4	3.3	0.7	100.0
성별							
남학생	(543)	10.3	33.0	52.3	3.9	0.6	100.0
여학생	(689)	11.3	32.5	52.4	2.9	0.9	100.0
가정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19.5	28.1	47.9	3.1	1.4	100.0
보통	(836)	8.4	34.9	52.9	3.2	0.6	100.0
가난한 편	(104)	6.7	27.9	60.6	4.8	0.0	100.0
학업성적							
상위권	(377)	16.2	29.7	51.7	2.1	0.3	100.0
중위권	(467)	11.8	37.3	47.1	3.0	0.9	100.0
하위권	(388)	4.6	30.2	59.3	4.9	1.0	100.0

3. 외국에 대한 관심

- ▶ 응답자들은 외국여행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음. 외국문화와 생활에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6.0%로 매우 높았음. 외국인과 친구를 맺고 싶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경우도 각각 78.7%, 76.9%로 나타났음. 반면, 외국어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3%,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은 58.8%,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56.0%로 비교적 낮았음.



주.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한 비율을 나타낸 것임.

[그림 1] 외국에 대한 관심

4. 외국에 가본 경험

- ▶ 답자 10명 중 4명 가량(42.1%)은 외국에 가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음. 집이 잘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국에 가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경우 외국에 자주 나간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외국에 가본 경험

	사례수 (명)	여러 번 있다	한두 번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1,232)	26.6	31.2	42.1	0.1	100.0
성별						
남학생	(543)	28.7	31.1	40.0	0.2	100.0
여학생	(689)	25.0	31.2	43.8	0.0	100.0
가정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46.6	28.4	24.7	0.3	100.0
보통	(836)	21.1	32.7	46.3	0.0	100.0
가난한 편	(104)	15.4	26.9	57.7	0.0	100.0
학업성적						
상위권	(377)	36.1	30.0	34.0	0.0	100.0
중위권	(467)	25.9	34.0	39.8	0.2	100.0
하위권	(388)	18.3	28.9	52.8	0.0	100.0

▶ 외국에 나가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목적을 질문하였음 (복수응답가능). 그 결과 관광이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유학이 그 뒤를 이었음. 즉 청소년들이 외국에 나간 목적은 유명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에 매우 치우쳐 있었음.

[표 9] 외국에 나간 목적

	사례수 (명)	관광	유학	수학여행이나 이벤트에 참가	친지 방문	기타	모름/무응답
▣ 전체 ▣	(712)	90.6	11.7	7.0	9.8	3.9	0.1
성별							
남학생	(325)	90.8	15.1	7.7	6.8	2.8	0.0
여학생	(387)	90.4	8.8	6.5	12.4	4.9	0.3
가정경제수준							
잘사는 편	(219)	91.8	16.9	8.2	12.3	3.2	0.5
보통	(449)	92.0	8.9	6.2	8.0	4.0	0.0
가난한 편	(44)	70.5	13.6	9.1	15.9	6.8	0.0
학업성적							
상위권	(249)	93.6	15.7	7.2	8.4	4.0	0.0
중위권	(280)	89.6	9.3	7.1	10.4	3.9	0.4
하위권	(183)	88.0	9.8	6.6	10.9	3.8	0.0

- ▶ 처음으로 외국으로 나간 시기는 초등학교 때라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중학교때라고 응답한 비율은 27.0%로 그 뒤를 이었고 초등학교 이전이라고 답한 비율은 25.6%였음. 특히 잘산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초등학교 이전에 외국에 나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표 10] 외국에 처음으로 나간 시기

	사례수 (명)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712)	25.6	38.9	27.0	8.4	0.1	100.0
성별							
남학생	(325)	27.4	42.8	23.4	6.5	0.0	100.0
여학생	(387)	24.0	35.7	30.0	10.1	0.3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19)	34.7	41.6	17.8	5.9	0.0	100.0
보통	(449)	21.8	38.8	30.5	8.9	0.0	100.0
가난한 편	(44)	18.2	27.3	36.4	15.9	2.3	100.0
학업성적							
상위권	(249)	26.9	40.6	24.9	7.2	0.4	100.0
중위권	(280)	25.4	39.3	27.5	7.9	0.0	100.0
하위권	(183)	24.0	36.1	29.0	10.9	0.0	100.0

5. 해외유학

- ▶ 해외유학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 정도(67.2%)가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우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잘사는 편에 속한다고 응답한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또한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에도 해외유학에 대한 흥미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표 11] 해외유학에 대한 흥미정도

	사례수 (명)	① 매우 흥미가 있다	② 어느 정도 흥미가 있다	③ 별로 흥미가 없다	④ 전혀 흥미가 없다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1,232)	26.5	40.7	26.5	6.3	0.1	100.0
성별							
남학생	(543)	22.7	35.4	32.2	9.8	0.0	100.0
여학생	(689)	29.5	44.8	21.9	3.6	0.1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33.6	40.1	20.9	5.5	0.0	100.0
보통	(836)	24.3	41.7	27.9	6.0	0.1	100.0
가난한 편	(104)	24.0	33.7	30.8	11.5	0.0	100.0
학업성적							
상위권	(377)	32.4	40.1	24.7	2.9	0.0	100.0
중위권	(467)	26.6	43.3	24.6	5.4	0.2	100.0
하위권	(388)	20.6	38.1	30.4	10.8	0.0	100.0

- ▶ 해외유학에 매우 흥미가 있거나 어느 정도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외유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누구의 영향인지 질문하였음. 그 결과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어 해외체험(19.2%), 친구(13.7%), 가족(12.0%) 순이었음.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매우 낮았음.

[표 12] 해외유학관심에 영향을 미친 것

	사례수 (명)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좋아하는 유명인이나 아이들	TV나 인터넷 등 매스컴	유학 알선업자	자신의 해외여행과 국제교류 등의 체험	기타	모름 /무응답	계
▣ 전체 ▣	(827)	12.0	13.7	1.5	3.9	38.1	0.2	19.2	5.4	6.0	100.0
성별											
남학생	(315)	12.7	15.2	1.9	3.8	36.5	0.3	21.0	4.4	4.1	100.0
여학생	(512)	11.5	12.7	1.2	3.9	39.1	0.2	18.2	6.1	7.2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15)	13.0	16.7	0.9	2.8	26.5	0.5	26.5	3.7	9.3	100.0
보통	(552)	12.1	12.7	1.6	4.2	42.0	0.2	17.0	4.9	5.3	100.0
가난한 편	(60)	6.7	11.7	1.7	5.0	43.3	0.0	13.3	16.7	1.7	100.0
학업성적											
상위권	(273)	11.7	13.6	2.2	3.3	37.0	0.4	18.7	4.8	8.4	100.0
중위권	(326)	12.3	15.6	1.2	2.1	40.5	0.0	19.9	4.3	4.0	100.0
하위권	(228)	11.8	11.0	0.9	7.0	36.0	0.4	18.9	7.9	6.1	100.0

- ▶ 응답자들에게 외국유학여부를 질문한 결과, 31.7%의 응답자들이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답해 청소년 10명 중 7명 정도가 유학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대학기간 중 유학을 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특히 잘살거나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대학 때 유학을 가고 싶은 비율이 높았음.

[표 13] 외국유학의향

	사례수 (명)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유학을 가고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고 싶다	대학기간 중 유학을 가고 싶다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을 가고 싶다	계
▣ 전체 ▣	(1,232)	31.7	16.3	18.1	24.6	9.3	100.0
성별							
남학생	(543)	42.9	11.8	18.4	17.1	9.8	100.0
여학생	(689)	22.8	19.9	17.9	30.5	9.0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92)	27.4	15.1	19.5	27.1	11.0	100.0
보통	(836)	32.3	17.1	17.7	24.5	8.4	100.0
가난한 편	(104)	38.5	13.5	17.3	18.3	12.5	100.0
학업성적							
상위권	(377)	26.0	14.6	17.0	32.6	9.8	100.0
중위권	(467)	30.0	17.6	18.6	24.2	9.6	100.0
하위권	(388)	39.2	16.5	18.6	17.3	8.5	100.0

▶ 유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을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음(복수응답). 그 결과 '언어장벽이 있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56.2%로 가장 높았고 '외국에서 홀로 생활하기 싫어서'가 45.4%로 그 뒤를 이었음. 3위는 '외국생활에 적응이 어려워서'였음. '귀찮아서'라고 대답한 비율도 29.2%로 나타났음. 즉 많은 학생들이 언어적인 장벽과 외국생활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유학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음.

[표 14] 유학을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사례수 (명)	부모님 결혼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우리나라 에서는 취업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우리 나라가 살기 좋지 않기 때문	경제적으 로 힘이 들어서	외국생활에 적응이 어려워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출로 생활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유학 시험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나에게는 맞기 때문에	기타	모름 /무응답
▣ 전체 ▣	390	22.6	1.0	56.2	16.4	27.7	42.8	29.0	12.6	45.4	29.2	9.0	1.8	4.6	1.3
성별															
남학생	233	16.7	1.3	50.2	20.2	22.3	38.2	23.6	15.0	34.8	30.5	7.7	2.1	4.7	0.9
여학생	157	31.2	0.6	65.0	10.8	35.7	49.7	36.9	8.9	61.1	27.4	10.8	1.3	4.5	1.9
경제수준															
잘사는 편	80	28.8	1.3	46.3	27.5	13.8	40.0	32.5	13.8	35.0	31.3	5.0	0.0	7.5	2.5
보통	270	21.9	1.1	59.3	14.1	27.0	44.4	28.5	12.6	50.0	28.5	10.4	2.2	4.1	0.7
가난한 편	40	15.0	0.0	55.0	10.0	60.0	37.5	25.0	10.0	35.0	30.0	7.5	2.5	2.5	2.5
학업성적															
상위권	98	23.5	1.0	55.1	11.2	33.7	44.9	32.7	12.2	48.0	33.7	8.2	0.0	10.2	2.0
중위권	140	24.3	1.4	56.4	16.4	22.1	37.1	28.6	13.6	46.4	27.9	7.1	2.1	3.6	0.7
하위권	152	20.4	0.7	56.6	19.7	28.9	46.7	27.0	11.8	42.8	27.6	11.2	2.6	2.0	1.3

▶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를 질문한 결과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가 78.0%로 가장 높았음. 이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가 62.2%, '어학능력을 키우기 위하여'가 58.6%로 뒤를 이었음. 반면, '장래의 취직에 유리하기 때문에'와 '국내의 진학경쟁이 너무 심하여'는 각각 33.1%, 24.2%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음. 즉 청소년들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하기보다는 많은 경험들을 쌓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학위를 따기 위해 유학을 가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집단과 잘사는 집단,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어학능력을 향상하기위해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표 15]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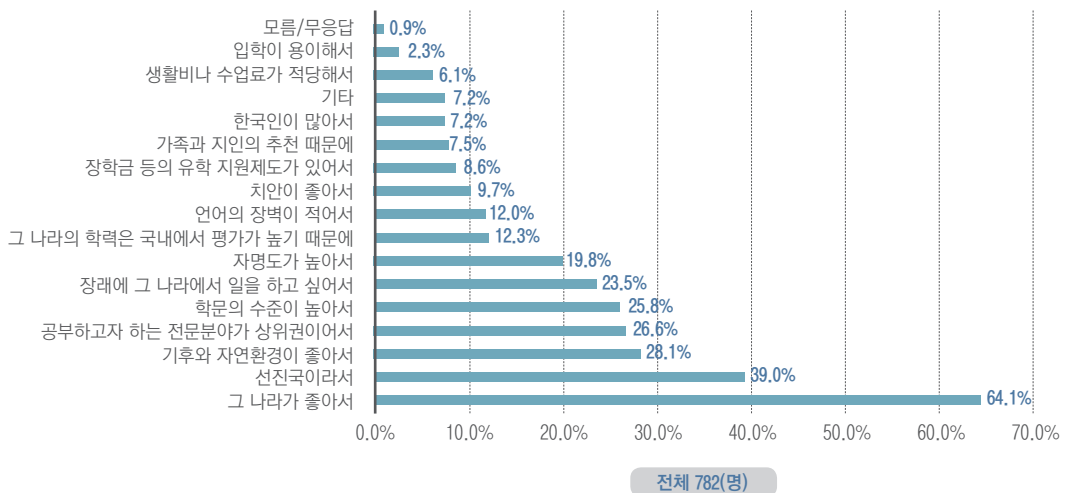
	사례수	외국에서 학위를 따고 싶어서	전문 (흥미가 있는) 분야를 배우고 싶어서	어학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보다 좋은 교육환경 을 추구하 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발전된 지식을 확득하고 싶어서	시아를 널리 위하여	장래의 취직에 유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국내의 진학 경쟁이 너무 심하여	부모님, 선생님, 지인들이 권하여	많은 친구들이 유학을 예정하고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기타
▣ 전체 ▣	842	23.6	46.3	58.6	36.6	29.3	62.2	33.1	47.3	24.2	3.2	1.8	78.0	20.8	1.9
성별															
남학생	310	20.3	44.8	48.1	32.6	32.6	54.5	31.0	42.9	20.6	2.9	1.3	75.8	23.9	1.3
여학생	532	25.6	47.2	64.7	38.9	27.4	66.7	34.4	49.8	26.3	3.4	2.1	79.3	19.0	2.3
경제수준															
잘사는 편	212	29.2	48.6	59.9	38.2	32.1	63.7	31.1	47.6	25.9	3.8	1.9	81.6	22.2	2.4
보통	566	21.7	45.6	58.0	35.3	28.1	62.0	33.6	47.2	23.7	3.2	1.8	77.0	20.0	1.4
가난한 편	64	21.9	45.3	59.4	42.2	31.3	59.4	35.9	46.9	23.4	1.6	1.6	75.0	23.4	4.7
학업성적															
상위권	279	25.1	43.4	62.0	39.1	35.1	67.4	30.5	49.1	19.7	3.9	1.8	79.2	22.6	1.4
중위권	327	23.9	47.7	54.7	38.8	30.6	63.6	32.7	45.3	26.9	2.1	1.5	78.6	17.7	1.8
하위권	236	21.6	47.9	59.7	30.5	20.8	54.2	36.9	47.9	25.8	3.8	2.1	75.8	22.9	2.5

- ▶ 장래에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은 지 1지망, 2지망, 3지망을 선택하라고 질문하였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합쳐 조사한 결과, 미국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국 36.7%, 캐나다 32.1%, 일본 29.8%, 프랑스 21.9%, 독일 21.3% 순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음. 남학생, 잘산다고 응답한 집단, 상위권 성적을 가진 집단에서 미국선호도가 높았음. 캐나다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캐나다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선호한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 남학생, 가난한 집안, 하위권성적을 가진 집단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

[표 16] 유학희망국가

	사례수(명)	미국	캐나다	오스트 레일리아	뉴질 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스페인	중국	일본	싱가 포르	기타	아직 모르 겠다	계
▣ 전체 ▣	(842)	60.2	32.1	15.2	19.0	36.7	21.9	21.3	10.1	11.3	6.5	29.8	5.5	6.5	7.1	100.0
성별																
남학생	(310)	67.7	22.6	12.9	12.9	38.4	20.0	29.7	8.4	10.6	7.4	36.8	3.9	9.4	5.5	100.0
여학생	(532)	55.8	37.6	16.5	22.6	35.7	22.9	16.4	11.1	11.7	6.0	25.8	6.4	4.9	8.1	100.0
경제수준																
잘사는 편	(212)	68.4	32.5	9.0	17.5	44.8	21.2	21.2	8.5	11.3	5.2	29.7	5.2	7.1	4.7	100.0
보통	(566)	58.0	31.8	17.7	20.0	33.9	23.0	21.2	10.4	11.8	6.4	28.1	5.7	6.2	8.0	100.0
가난한 편	(64)	53.1	32.8	14.1	15.6	34.4	14.1	21.9	12.5	6.3	12.5	45.3	4.7	7.8	7.8	100.0
학업성적																
상위권	(279)	64.9	36.2	13.6	18.3	43.7	19.4	22.2	7.9	11.1	5.4	25.1	7.5	6.8	5.4	100.0
중위권	(327)	59.0	31.8	15.6	17.7	33.9	24.8	22.9	9.5	11.9	6.7	31.5	4.0	5.5	7.6	100.0
하위권	(236)	56.4	27.5	16.5	21.6	32.2	20.8	17.8	13.6	10.6	7.6	33.1	5.1	7.6	8.5	100.0

- ▶ 해당국가로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그 나라가 좋아서’라고 답했고 ‘선진국이라서’, ‘기후와 자연환경이 좋아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상위권이어서’순이었음. 반면, 장학금과 같은 지원제도, 언어문제, 치안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음.



[그림 2] 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 (복수응답)

- ▶ 유학지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는 어학분야(22.0%)와 예술분야(21.0%), 공학계(18.4%), 인문계(7.4%), 의학계(6.2%) 순으로 나타났다.
- ▶ 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어학의 습득이 42.0%로 가장 높았고 전문기술과 자격취득이 35.6%로 그 뒤를 이었음. 학위취득은 15.6%로 나타났다.
- ▶ 유학기간은 1년 이상 ~ 2년 미만인 36.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 1년 미만(24.9%), 2년 이상 ~ 4년 미만(22.4%), 4년 이상(8.6%), 6개월 이내(7.5%)로 나타남.
- ▶ 현재 유학에 관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5.5%에 불과하였음.
- ▶ 응답자들은 유학에 관해 언어문제와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안전문제도 비교적 많은 응답자들이 걱정거리로 이야기하였음.

[표 17] 유학에 관한 걱정거리(복수응답)

	사례수 (명)	고향 생각	돈 걱정	독신 생활	언어의 문제	문화의 차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	안전 문제	친구가 없는 것	기타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다
▣ 전체 ▣	(842)	28.3	68.1	28.7	66.3	39.3	21.1	43.7	32.7	3.0	3.3
성별											
남학생	(310)	23.2	59.0	18.4	61.3	37.4	19.7	28.4	26.8	1.9	6.5
여학생	(532)	31.2	73.3	34.8	69.2	40.4	22.0	52.6	36.1	3.6	1.5
경제수준											
잘사는 편	(212)	27.8	44.3	27.8	56.6	36.3	18.9	45.8	37.7	4.2	6.1
보통	(566)	29.2	74.6	29.3	69.6	41.3	21.4	44.2	30.7	2.7	2.5
가난한 편	(64)	21.9	89.1	26.6	68.8	31.3	26.6	32.8	32.8	1.6	1.6
학업성적											
상위권	(279)	26.9	68.1	29.4	59.1	34.8	13.3	41.6	28.3	3.2	1.8
중위권	(327)	30.3	67.0	25.7	66.4	39.8	21.1	46.8	30.9	2.8	4.9
하위권	(236)	27.1	69.5	32.2	74.6	44.1	30.5	41.9	40.3	3.0	3.0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 장래의식

- ▶ 청소년들의 장래의식은 매우 낙관적이었음. 응답자 10명중 7명 가량이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해놓았으며 장래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절반 가량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취미와 개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했음.

2) 외국에 대한 관심

- ▶ 응답자들의 외국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에서도 외국여행이나 외국문화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즉 많은 청소년들이 외국의 문화와 생활을 알고 싶어했음.
- ▶ 외국에 나가본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관광목적으로 외국에 간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국제체험행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음.

3) 유학의식

- ▶ 청소년들의 70% 가량이 해외유학에 흥미가 있거나 유학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유학이유는 많은 경험을 쌓거나 시야를 넓히거나 어학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났음. 하지만, 유학 희망국가는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가 많아 특정국가에 편중돼 있었음.
- ▶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7년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 즉 2011년도 본원 조사에서는 82.3%의 응답자들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한 반면 (이경상 외, 2011) 현재 조사에서는 68.3%의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싶어했음. 이처럼 유학희망자 수가 감소한 배경에는 유학을 다녀와도 국내에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 유학이 크게 이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됨.

2. 정책제언

- ▶ 해외유학은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의식과 덕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려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본 연구에서도 잘사는 편에 속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유학에 대한 흥미와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따라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없이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학국가는 여전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가에 편중되었음. 해외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공부한다는 면에서 유학의 의의가 있음을 고려하면 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으로 유학을 갈 필요가 있음. 어학습득의 측면에서 보면 필리핀 등 비교적 학비나 생활비가 저렴한 국가로의 유학도 장려해 볼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외국에 나간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관광목적이었음. 따라서, 국가간의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청소년들이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 한국과 외국 여러나라들 간의 역사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해외봉사활동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외국청소년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견문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이 해외유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외부적 요인이 많았음. 즉 국가의 선진화 정도, 기후와 자연환경, 학문수준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유학국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잘 계발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기보다 지명도나 외부평판 같은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유학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유학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야 할 것임.
- ▶ 유학장애요인으로서는 언어장벽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청소년들이 외국어에 친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현지에서 사용되는 생활외국어를 많이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진숙, 이경상 (2012). 사회경제적 배경과 고등학생 청소년의 유학의식. **미래청소년학회지**, 9(4), 259-280.
- 이경상, 임희진, 김진숙 (2011). **한, 중, 일, 미 고교생 진로 및 유학의식에 관한 국제비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순형, 권미경 (2009). 한국의 조기유학. **아동학회지**, 30(6), 297-308.
- 정용교 (2013). 조기유학생들의 교육적 적응을 통해 본 세계시민적 정체성 형성: 필리핀 산베다유학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2(1), 117-132.
- 조혜영, 최원기, 이경상, Nancy Abelman (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 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8(12), 375-402.
- e-나라지표 (2018). 유학생현황. <http://www.index.go.kr> 에서 2018년 11월 15일 인출.